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비교

발행인 : 하태형
편집주간 : 한상완
편집위원 : 주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중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Executive Summary i

1. 공식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확대 1

2.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비교 4

3. 시사점 13

【HRI 경제 통계】 15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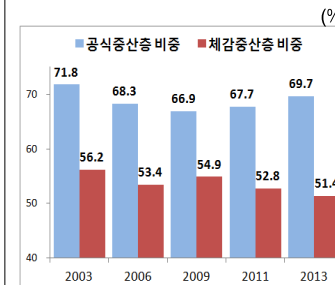
■ 공식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중산층 비중은 커지는 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괴리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통계청은 소득수준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반면, 국민들은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자산수준,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산층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비교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은 매달 515만원을 벌며 341만원을 쓰고, 35평짜리 주택을 포함 6.6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매달 12만원 상당의 외식을 네 차례 즐기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후원하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반면 현실의 모습은 매달 416만원을 벌며 252만원을 쓰고, 27평짜리 주택을 포함 3.8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6만원 상당의 외식을 세 차례 즐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1.1%를 기부후원하며, 1년에 3.1회 무료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중산층과 체감중산층>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 사회조사).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비교>

	이상적인 모습	현실의 모습	격차	
소득 자산	월세후소득(만원)	515	416	99
	순자산(억원)	6.6	3.8	2.8
	주택가격(억원)	3.7	2.2	1.5
삶의 질	주택평수(평)	34.9	26.6	8.3
	월생활비(만원)	341	252	89
	월외식횟수(회)	4.0	3.2	0.8
사회 기여	회당 외식비용(만원)	12.3	6.3	6.0
	기부후원금/소득(%)	2.5	1.1	1.4
	년무료봉사횟수(회)	3.5	3.1	0.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첫째, 소득향상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빠듯한 생활비 속에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동호인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봉사 활동과 기부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와 타인을 위한 봉사가 곧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민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중산층을 새롭게 정의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되, 특히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1. 공식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확대

○ 공식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공식중산층(OECD기준 중산층) 비중은 커지는 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
- OECD 기준으로 총인구 중 중산층의 비중은 2009년 66.9%에서 2013년 69.7%로 2.8%p 상승한 반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 비중은 같은 기간 54.9%에서 51.4%로 오히려 3.5%p 감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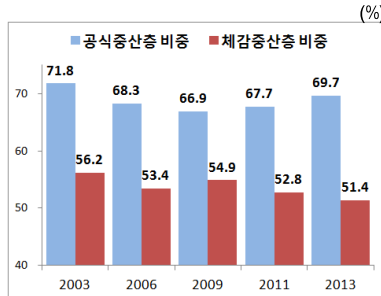
※**OECD기준 중산층**이란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치분소득($\frac{\text{가치분소득}}{\sqrt{\text{가구원수}}}$)이 중위값의 50~150%인 경우로서, OECD와 한국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

- 한편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는 저소득층(상대적 빈곤층), 150% 이상인 경우는 고소득층으로 정의

※**체감중산층**이란 본인이 생각하기에 스스로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로서, 주관적 판단에 기초

- 특히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하고 나머지 55%는 자신을 저소득층이라 생각

<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 >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 사회조사).
주 : OECD중산층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체감계층 (%)		
		고소득 (0.8%)	중산층 (51.8%)	저소득 (47.4%)
OECD 기준 계층	고소득 (30.8%)	0.8	22.7	7.4
	중산층 (61.9%)	0.0	27.9	34.0
	저소득 (7.3%)	0.0	1.3	6.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3).
주 : < >는 OECD기준 중산층 중에서 체감중산층 및 체감저소득층의 비중.

1)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현대경제연구원, 2013) 참조.

- 공식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가 커짐에 따라, 중산층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가 국내외에서 지속되고 있음

- 괴리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OECD의 중산층 정의와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
- OECD는 소득수준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반면, 국민들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산수준,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산층을 정의하기 때문
-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은 소득 이외의 다양한 기준으로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을 재정의 위한 노력 지속
- 가족휴가, 악기 연주 능력 등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와 더불어,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페어플레이 정신 등 사회적 기여 및 시민의식을 반영하는 지표 등을 사용

< 국내외 주요 기관의 중산층 정의 >

	기관	중산층 정의
소득 기준	OECD	중위소득 50~150%
	LIS *	중위소득 75~125%
	미국 센서스국	중위소득 50~200%
	한국 통계청	중위소득 50~150%
소득 외 기준	미국(오바마정부)	주택소유, 자녀 대학교육, 의료보험, 퇴직연금, 가족휴가 등으로 정의
	프랑스(퐁피두정부)	1개 이상 외국어 구사능력, 스포츠활동, 악기 연주능력, 약자 위한 봉사활동 등으로 정의
	영국(옥스퍼드)	페어플레이 정신, 신념 소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
	현대경제연구원	상당한 수준의 소득과 자산,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으로 정의

주 : LIS(Luxembourg Income Survey)는 각국의 소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연구목적) 국민들이 이상적(ideal)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를 국민들의 실제 삶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 도출

-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모습의 중산층과 국민들의 실제 삶을 비교
- 이상적인 중산층의 모습과 실제 국민의 삶의 격차를 확인하고,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중산층의 다양한 측면** : 국민들은 소득수준 및 자산규모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 수준과 시민의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중산층을 인식
 - 소득·자산 수준 : 세후소득, 순자산, 보유주택 평수 및 가격
 -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 생활비, 외식 횟수 및 비용
 -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 소득 대비 기부후원금액, 무료자원봉사 횟수
- **설문조사 개요** : 전국 성인 남녀 817명을 대상으로 중산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보았음
 - 표본추출 :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중을 고려함
 - 조사 기간은 2014년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며, 유선전화 설문으로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43%p임

< 중산층의 다양한 측면과 주요 평가지표 >

중산층의 다양한 측면	주요 평가지표
소득과 자산 수준	세후소득, 순자산, 보유주택 평수 및 가격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생활비, 외식 횟수 및 비용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소득 대비 기부후원금액, 무료자원봉사 횟수

2) 자세한 응답자 특성은 별첨 참조.

2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비교

(1) 중산층 결정요소에 대한 국민 인식

○ 국민들은 소득·자산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중산층을 인식

- **전체** : 중산층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은 상당한 수준의 소득과 자산,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 수준과 시민의식 등을 꼽음
 -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9%는 ‘상당한 수준의 소득과 자산’을, 37.7%는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을 꼽았고, ‘사회적 기여 수준과 시민의식’은 11.9%,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3.6%로 나타남
- **30대·남성·중소득 계층은 ‘소득·자산’을 꼽은 반면, 20대·여성·고소득 계층은 ‘여유로운생활·삶의질’을 중시**
 - 소득·자산 (46.9%) : 30대 54.1%, 남성 50.7%, 月세후소득 400만원대 53.8%, 자산 1억원 미만 50.4%로 평균을 상회
 - 삶의 질 (37.7%) : 20대 40.3%, 여성 42.2%, 月세후소득 600만원 이상 41.3%, 자산 10억원 이상 51.5%로 평균을 상회
 - 사회적 기여 (11.9%) : 50대 이상 18.0%, 기부활동 하는 사람 14.6%, 무료봉사 활동 하는 사람 15.0%로 평균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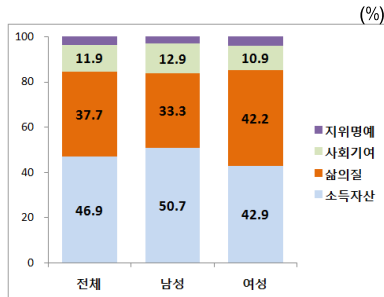
<중산층 결정요소에 대한 국민인식>

결정요소	중시하는 주요 계층
소득·자산	30대, 남성, 자산 1억원 미만, 月세후소득 400만원대
삶의 질	20대, 여성, 자산 10억원 이상, 세후소득 600만원 이상
사회적기여	50대 이상, 기부 및 무료봉사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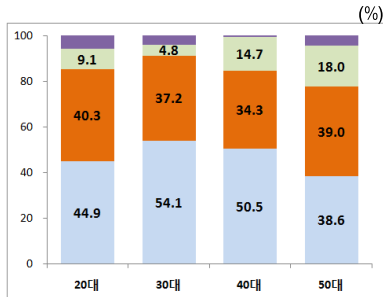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성별** : 남성은 상당한 수준의 소득·자산을 중요시하는 반면, 여성은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
 - 남성의 경우 소득·자산이 과반(50.7%)을 차지한 반면 삶의 질은 33.3%로 평균치를 밑돌고, 사회기여는 12.9%를 차지
 - 반면 여성의 경우 삶의 질이 42.2%로 전체 평균치를 상회하고, 소득·자산은 42.9%, 사회기여는 10.9%를 기록
 - '남성이 돈을 벌고 여성은 살림을 한다'는 가족·문화적, 성역할 구분의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연령별** : 30대를 정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자산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사회적 기여 수준과 시민의식을 중시하는 비중이 높아짐
 - 상당한 수준의 소득·자산을 결정요소로 꼽은 비중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각각 54.1%, 50.5%, 38.6%로 점차 떨어짐
 - 반면 사회적 기여 수준과 시민의식을 중시하는 비중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각각 4.8%, 14.7%, 18.0%로 점차 높아짐
 - 30대는 내집마련 부담과 출산·육아 부담 때문에, 40대는 교육비 부담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소득·자산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임
 - 반면 50대 베이비부머세대는 70년대 호황기 때 사회생활을 시작해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세대기 때문에, 60대 이상은 사회적 공동체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을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중산층 결정요소 :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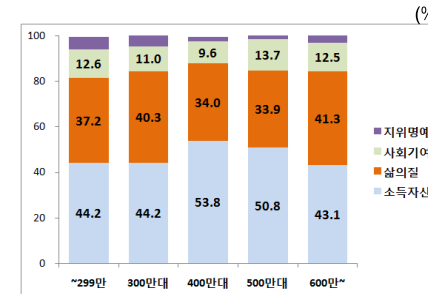
<중산층 결정요소 : 연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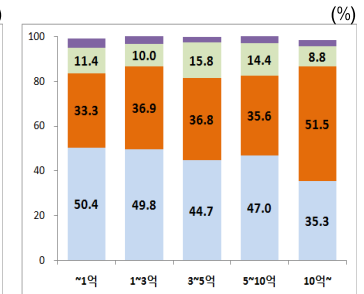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소득수준별** : 월평균 세후소득이 400~599만원인 경우 소득·자산을 꼽은 비중이 큰 반면, 이보다 소득이 많거나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삶의 질을 중시
 - 소득이 400~499만원인 경우 소득·자산을 택한 비중이 53.8%에 달하고 삶의 질은 34.0%에 불과
 - 반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삶의 질을 꼽은 비중이 41.3%로 전체 평균치를 상회하고, 소득·자산은 43.1%를 기록
 - 소득수준 400만 원대까지는 소득·자산을 중시하는 반면, 그 수준을 넘어서면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선호가 커짐. 이는 소득수준이 계층 의식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아님을 반영
- **순자산규모별** :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10억원을 넘어서면서 소득·자산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우가 급증
 - 순자산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소득·자산을 결정요소로 꼽은 비중은 35.3%에 불과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우는 51.5%에 달함
 - 한편 다른 순자산 구간에서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선호를 보임
 -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소득을 축적한 이후에는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상식과 일치

<중산층 결정요소 : 소득수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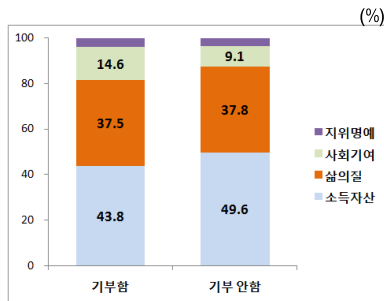
<중산층 결정요소 : 순자산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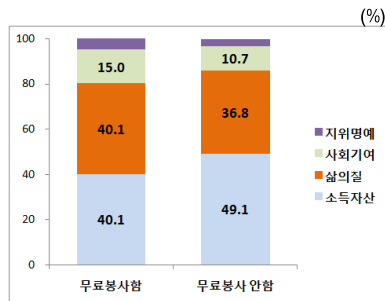
- **기부후원 여부별** : 소득의 일부를 기부후원하고 있는 국민들은 사회기여를 꼽은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자산·소득은 덜 중시
 -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부후원(십일조 등 종교헌금이나 정치후원금 제외)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사회기여를 꼽은 비중이 14.6%로 평균치를 상회하는 반면 소득자산을 꼽은 비중은 43.8%로 평균치를 하회
 - 반면 기부후원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사회기여 응답률은 9.1%, 소득·자산 응답률은 49.6%를 기록
 -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후원하는 문화가 확대될수록 이상적인 중산층의 비중도 커질 수 있음을 암시
- **무료봉사활동 여부별** : 무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사회기여를 중시하는 경우가 평균보다 높은 반면, 자산·소득은 덜 중시
 - 사회적 약자나 일반인을 위해 무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사회기여를 결정요소로 꼽은 비중이 15.0%로 평균치를 상회하는 반면 소득자산을 꼽은 비중은 40.1%로 평균치를 하회
 - 반면 무료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응답자는 여성의 경우, 사회기여 응답률은 10.7%, 소득자산 응답률은 49.1%를 기록
 - 이는 사회적 약자나 일반인을 위해 무료자원봉사를 하는 문화가 확대될수록 이상적인 중산층의 비중도 커질 수 있음을 암시

<중산층 결정요소 : 기부후원 여부별 비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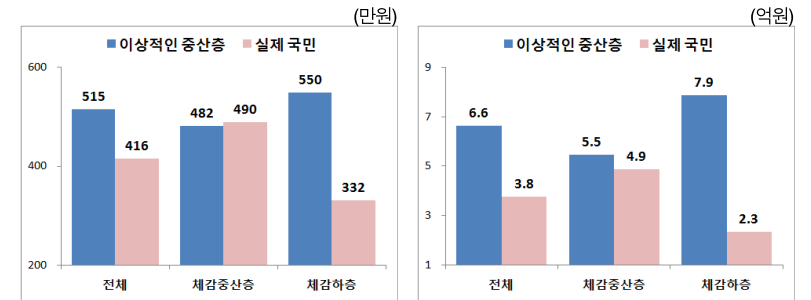
<중산층 결정요소 : 무료봉사활동 여부별 비교>



(2)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비교

- (소득·자산)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은 月소득과 순자산이 각각 515만원, 6.6억원이고, 3.7억원 상당의 35평짜리 주택을 보유
 - **소득** :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月가구소득과 현실의 月가구소득은 약 100만원 차이가 나며, 특히 체감하층에서 큰 격차를 보임
 -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월평균 세후가구소득(4인 가구 기준)³⁾은 515만원인 반면, 응답자의 실제 세후가구소득은 416만원임
 -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중산층)의 경우, 이상적인 중산층의 月가구소득과 본인의 실제 가구소득은 각각 482만원, 490만원으로 거의 일치
 - 반면 스스로를 하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하층)의 경우, 각각 550만원, 332만원이라고 답해 200만원이 넘는 차이를 보임
 - **순자산** :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순자산과 현실의 순자산(자산·부채)은 약 2.8억원 차이가 나며, 특히 체감하층에서 격차가 큼
 -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순자산⁴⁾은 6.6억원인 반면, 응답자의 실제 순자산은 3.8억원임
 -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중산층)의 경우, 이상적인 중산층의 순자산과 본인의 실제 순자산은 각각 5.5억원과 4.9억원으로 0.6억원 차이
 - 반면 스스로를 하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하층)의 경우, 각각 7.9억원과 2.3억원으로 무려 5.6억원이나 차이가 남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비교>
<세후 月가구소득 비교> <순자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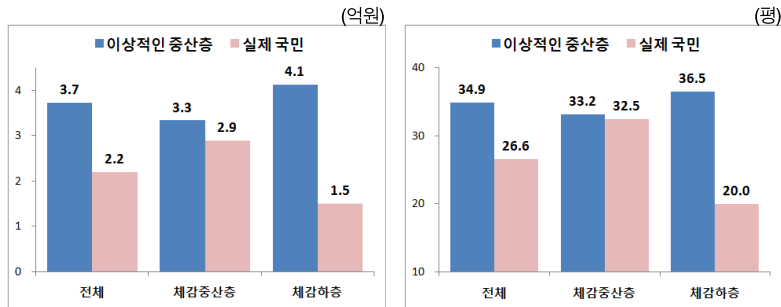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3)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세금, 4대 보험 제외)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평균 515만원이라고 답함.
 4)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쳐서 자산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으로 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의 응답.

- **주택가격** :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주택가격과 현실의 주택 가격은 1.5억원의 차이가 나며, 특히 체감하층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주택가격⁵⁾은 3.7억원이고, 응답자의 실제 주택 가격은 평균 2.2억원임 (무주택자를 제외할 경우 평균 2.9억원)
 -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중산층)의 경우, 이상적인 중산층의 주택 가격과 본인의 실제 주택가격은 각각 3.3억원, 2.9억원으로 0.4억원 차이에 불과
 - 반면 스스로를 하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하층)의 경우, 4.1억원, 1.5억원 으로 격차가 2.6억원에 달함
- **주택평수** :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과 현실의 주택평수는 8.3평의 차이가 나며, 특히 체감하층의 격차가 심함
 -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산층의 주택평수는 34.9평고, 응답자의 실제 주택평수는 26.6평임 (무주택자를 제외할 경우 평균 34.7평)
 -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중산층)의 경우, 이상적인 중산층의 주택평수와 본인의 실제 주택평수는 각각 33.2평, 32.5평으로 거의 차이가 없음
 - 반면 스스로를 하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하층)의 경우, 36.5평, 20.0평으로 격차가 16.5평에 달함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비교>
<주택가격 비교> <주택 평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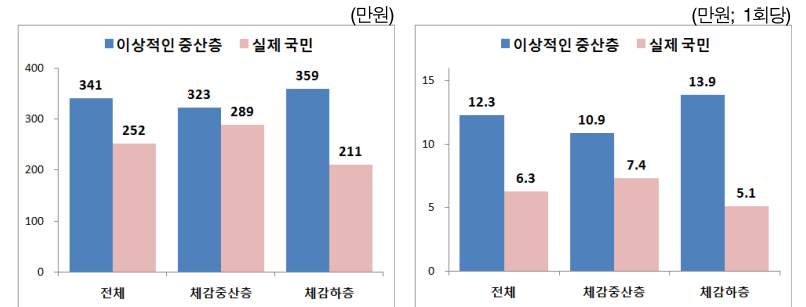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5)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면, 보유주택이 몇 평, 얼마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평균 34.9평, 3.7억원이라고 답함.

- **(삶의 질)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월평균 생활비는 341만원이고, 매달 12만원 상당의 외식을 네 차례 즐김**
- **생활비** :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생활비와 현실의 생활비는 월평균 90만원 차이가 나며, 특히 체감하층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산층의 월생활비는 341만원인 반면, 응답자의 실제 월생활비는 252만원임
 -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중산층)의 경우, 이상적인 중산층의 월생활비와 본인의 실제 생활비는 각각 323만원, 289만원으로 34만원 차이
 - 반면 스스로를 하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하층)의 경우, 각각 359만원, 211만원으로 격차가 148만원에 달함
- **외식횟수 및 비용** : 이상적인 중산층과 현실의 월평균 외식횟수 및 1회당 외식 비용은 각각 0.8회, 6만원 차이가 나며, 특히 체감하층에서 큰 격차를 보임
 - 이상적인 중산층의 월외식횟수 및 1회당 외식비용은 4.0회, 12.3만원인 반면, 응답자의 실제 외식횟수 및 비용은 3.2회, 6.3만원임
 -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중산층)의 경우, 이상적인 중산층의 월외식횟수와 본인의 실제 외식횟수는 각각 3.7회, 3.5회이고, 1회당 외식비용도 각각 10.9만원, 7.4만원으로 격차가 달함
 - 반면 스스로를 하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하층)의 경우, 외식횟수가 각각 4.3회, 2.3회이고, 1회당 외식비용도 각각 13.9만원, 5.1만원으로 격차가 큼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비교>
<생활비 비교> <외식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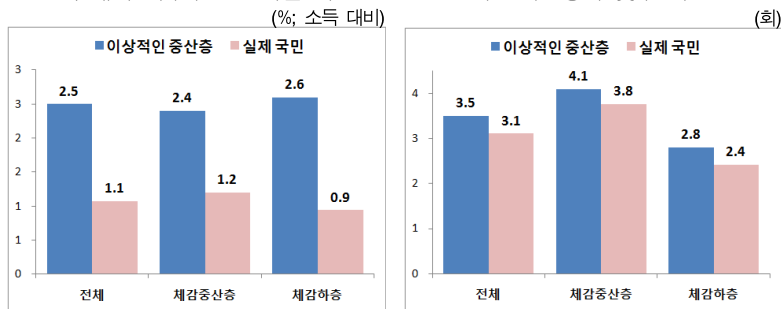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사회기여)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후원하고 1년에 3.5회 무료자원봉사 활동

- 기부·후원 : 이상적인 중산층과 실제 국민의 소득 대비 기부후원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체감하층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산층의 소득 대비 기부후원금(%)은 약 2.5%인 반면, 응답자의 실제 기부후원금은 1.1%임
 -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중산층)의 경우, 이상적인 중산층의 소득 대비 기부후원금과 본인의 실제 기부후원금은 각각 2.4%, 1.2%로 절반에 불과
 - 한편 스스로를 하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하층)의 경우, 각각 2.6%, 0.9%로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임
- 무료봉사 :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과 실제 국민의 월평균 무료봉사활동 횟수는 체감중산층과 체감하층 모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상적인 중산층의 무료봉사활동 횟수(회)는 연평균 3.5회이고, 응답자의 실제 무료봉사활동 횟수는 3.1회로 0.4회의 미미한 차이 존재
 -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중산층)의 경우, 이상적인 중산층의 무료봉사활동 횟수와 본인의 실제 무료봉사활동 횟수는 각각 4.1회, 3.8회로 비슷
 - 한편 스스로를 하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체감하층)의 경우, 각각 2.8회, 2.4회로 나타남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비교>
<소득 대비 기부후원금 비율 비교> <무료자원봉사 횟수 비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6)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면, 적십자회비나 복지단체 등의 기부·후원금 지출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십일조 등 종교헌금이나 정치후원금 제외)”라는 질문에 소득의 2.5%(응답자 평균)라고 답함.
7)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봉사활동을 얼마나 자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1년에 평균 3.5회라고 답함.

○ (총평)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은 상당규모의 소득·자산을 보유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기여와 시민 의식을 중시

-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 : 매달 515만원을 벌며 341만 원을 쓰고, 35평짜리 주택을 포함 6.6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매달 12만원 상당의 외식을 네 차례 즐기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후원하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함
- 현실의 모습 : 현실의 국민은 매달 416만원을 벌며 252만원을 쓰고, 27평짜리 주택을 포함 3.8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6만원 상당의 외식을 세 차례 즐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1.1%를 기부후원하며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비교>

		이상적인 중산층 모습	현실 국민의 삶	격차
소득·자산	월세후소득 (만원)	515	416	99
	순자산 (억원)	6.6	3.8	2.8
	주택가격 (억원)	3.7	2.2	1.5
	주택평수 (평)	34.9	26.6	8.3
여유로운 생활·삶의질	월생활비 (만원)	341	252	89
	월외식횟수 (회)	4.0	3.2	0.8
	회당 외식비용 (만원)	12.3	6.3	6.0
사회적 기여·시민의식	기부후원금/소득 (%)	2.5	1.1	1.4
	무료봉사횟수 (회)	3.5	3.1	0.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3. 시사점

-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소득·자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사회기여 문화 확대가 필요
 - 소득향상 및 자산형성을 통해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한국경제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함으로써 시장소득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정부정책 마련
 -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 넉넉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
 - 빠듯한 생활비 속에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모색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
 - 출산·육아 서비스 지원 및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가족, 동호인 등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스포츠 등의 인프라 구축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후원 및 무료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식 배양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봉사 활동과 기부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 약자와 타인을 위한 봉사가 곧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민의식 배양
 - 국민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중산층을 새롭게 정의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되, 특히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 확대에 노력
 - 본인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의 경우, 이상적인 중산층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삶이 거의 일치
 - 이는 체감중산층이 두터울수록 이상적인 중산층과 국민의 실제 삶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음을 반영

경제연구본부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응답자 특성 >

(%)

응답자 특성		비중	응답자 특성		비중
전체	817명	100%			
성별	남성	50.6	소득 수준별	~299만원	26.3
	여성	49.4		300만원대	18.8
연령별	20대 이하	21.5		400만원대	19.1
	30대	25.3		500만원대	15.2
	40대	25.1		600만원 이상	19.6
	50대	15.3		자산 규모별	1억 미만
	60대 이상	12.7	1~3억미만		33.2
학력별	고졸 이하	30.1	3~5억미만		18.6
	대졸	58.9	5~10억미만	16.2	
	대학원졸 이상	10.9	10억이상	8.3	
지역별	서울	20.2	생활비 수준별	~199만원	29.1
	6개 광역시	24.2		200만원대	28.5
	9개 광역도	55.6		300만원대	22.9
가구주 직업별	정규직	57.3	400만원 이상	16.5	
	비정규직	9.7	가계 수지	흑자가구	61.8
	자영업자	25.3		적자가구	12.2
기타	7.7	균형가구		25.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2.3	2.1	2.7	3.4	3.7	3.0	3.9	3.8	
	민간소비(%)	1.9	1.7	2.1	2.1	2.2	2.0	2.6	2.7	
	건설투자(%)	-3.9	1.9	9.8	8.8	5.4	6.7	4.1	2.5	
	설비투자(%)	0.1	-12.7	-3.9	1.5	10.9	-1.5	8.0	6.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508	105	208	238	248	799	151	490	
	무역수지(억 \$)	283	56	144	108	133	441	59	370	
	통관기준	수출(억 \$)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1,383	6,067
		증감률(%)	(-1.3)	(0.3)	(0.7)	(2.8)	(4.7)	(2.1)	(2.2)	(8.4)
	수입(억 \$)	5,196	1,297	1,268	1,260	1,331	5,156	1,324	5,697	
		증감률(%)	(-0.9)	(-2.9)	(-2.8)	(0.3)	(2.5)	(-0.8)	(2.1)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1.6	1.2	1.4	1.1	1.3	1.1	2.4		
실업률(%)	3.2	3.6	3.1	3.0	2.8	3.1	4.0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69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